

한스경제

hansbiz.co.kr



2022년 8월 8일 월요일 | 15판

한스경제 Brief

고급리에... 소형 아파트 중형 오피스텔 인기

고급리 시대를 맞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상반된 분위기다. 아파트는 소형, 오피스텔은 중형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큼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규모별 주택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3만 4945건. 이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 4673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70.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용영 기자
기사 3편

손흥민·황희찬, EPL 개막전서 '특급 AS'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과 황희찬(26·울버햄턴 원더러스)이 개막전부터 나란히 도움을 기록하며 세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손흥민은 7월(이하 한국 시각) 잉글랜드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끝난 사우스햄턴과 2022-2023시즌 EPL 1라운드에서 1-1로 맞서던 전반 31분 동료 에릭 다이어(28)의 역전 결승골을 도우며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슈팅과 패스를 가리지 않고 맹활약했다. 유효슈팅 2회를 포함해 4차례 슈팅을 때렸다. 박경준 기자
기사 14편

박찬구·이중근·이호진 등 거론... 경영족쇄 풀릴까

내일 심사위원 대상자 심사... 12일 발표상의, 경제단체 추천 사면 건의서 제출 대부분 행방 마치고 취업 제한 걸러 "경제 활성화 도움" 국민 여론도 긍정적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가 이번 주 진행되면서 경제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을 추진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기업 활동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기업인 사면 대상과 규모에 재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전례에 비추어 이틀간 심사 뒤 12일께 대상자 발표가 예상된다. 사면심사위원은 한동훈 법무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을 단행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기업인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명단 대상과 규모는 물론 명단을 전달했다는 것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을뿐더러 정치인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자칫 (경제인)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오히려 자

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의에서 경제단체들에게 사면대상으로 직접 기업인들을 추천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그러서 각 단체들은 추천명단(초안)을 상의에 보내줬고 상의에서 취합 정리해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총수들은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대광그룹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날 29일자로 행기가 끝났지만 5년간 취업제한이 걸려 있어 적극적인 경영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은 2021년 석방됐고 취업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집행유예 중이라 경영활동에 한계는 있다.

박찬구 회장은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으며 경영참여가 어려운 상태다. 이중근 회장은 80대 고령에도 혈량 80%를 채우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하지만 경제사범에 적용된 취업제한으로 역시 경영참여가 어렵다.

이호진 전 회장 역시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취업제한인 상태다. 대광그룹은 10년간 총수부제를 겪으면서 재계순위 30위권에서 49위로 추락했다. 장세주 회장이 형 집행은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있다.

이같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상자 대부분은 행방을 마친 상태로 취업제한이 막혀 있는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대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경제인사들이다. 이에 정재계 주요 인사들은 경제인 사면에 적극적으로 긍정 반응을 보이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날 27일 국회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경총 경제부총리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나서자는 취지에서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해 사면론에 더욱 힘이 실린다.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들 사면에 대한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 국민 50.2%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 37.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국민은 53.1%로 나타났다. 더욱이 윤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라 그 폭이 상당할 것이라 관측이다. 게다가 역대 정부에서는 기업인 사면을 통해 윤리 피유치, 투사 확대 등 실제로 국익 증대에 기여한 만큼 경제 위기 속 기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기업인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도 있어 기업인 사면 쪽에 이목이 쏠린다.

재계 관계자는 "역대 기업인 특사 이후 경제가 활력을 되찾은 바 있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돌파하기 위해 첫 사면권을 대대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경제 활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환 기자 chjhn@sorbiz.co.kr

'고액자산가 모시기' 나선 금융권... "직업별 맞춤형 타깃팅하라"

글로벌사, 전문직·신흥부유층 개별 관리 국내는 대부분 '일회적 마케팅'에 그쳐 단기 성과보다 다양한 시도 병행해야

고액자산가가 늘어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금융회사들도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직업'을 기준으로 타깃팅한 자산관리 전략은 차별화 포인트로 유의미해 보인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김혜원 수석연구원은 '직업별 자산관리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도 고액자산가로 부상하는 특정 직업군을 공략하기 위해 이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프랑스 소재 다국적 컨설팅기업 켈레미가 지난 6월 발간한 '월드 웰스 리포트 2022'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투자 가능한 고액자산가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글로벌 고액자산가는 22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는 고액자산가가 연평균 4.7%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8.2%로, 그 성장세가 커졌다.

해당 보고서는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현재 이용 중인 자산관리 회사의 맞춤형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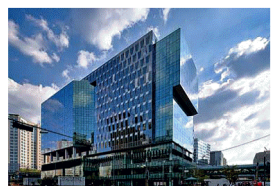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고객의 금융자산 규모, 투자성향, 나이 등을 기초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설계하기 때문에 고객을 입장에서 서비스 차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세태 변화하면서 전문직 중심의 전통적 자산가에서 문화콘텐츠, 디지털 기술 등과 같은 산업에서 비롯된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고액자산가 반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회사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직업별 특성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의 니즈가 다르다는 점을 착안해 전문적인 부유층인 전문직을 비롯해, 신흥 부유층을 직업군별로 나눠 관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이미 2014년 11월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담조직을 출범시켰으며 실제 임종 경력자들을 채용하는 등, 특수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모건스탠리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운동선수나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은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은행 업무 등을 처리하기 어려우며, 은퇴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착안해 은퇴계획이 강화된 원스톱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마련했다.

씨티그룹은 1971년부터 변호사 전용의 자산 관리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니즈를 서비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 판교 전경 미래에셋증권 제공

스에 잘 반영하기 위해 변호사 출신의 책임자가 해당 조직을 전담지휘하고 있다. 씨티그룹의 로펌 밀착 영업은 이후 미국과 영국의 700여 개 로펌과 5만여 명의 변호사들에게 전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에 비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고액자산가를 위한 전략은 대부분 일회적인 마케팅 활동에 그치고 있다.

2017년 KB국민은행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의사 등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럽'을, 우리은행은 투채이스 강남센터 내에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PB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럽스타' 조직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두 은행은 병행 경영자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엔서블 제휴 자산관리', 'KB 닥터스 자산관리'

서비스도 운영했지만 마땅하지도 중단했다. 당시 KB국민은행 삼성생명 PB센터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어서 인연이 닿게 됐다. 현재는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본사를 이전하면서 당시 계약한 고객들 중 상당 수가 여전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선 올해 들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제2의 본사 출범'으로 표현한 판교 투자센터를 지난 11월 오픈하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특히 단지 '영 앤 리치' 개인의 자산관리를 넘어,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의 자본관리, 경영 컨설팅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점이 특화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전략처럼 단지 직업군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며, 단순히 실적 차이를 떠나 엄밀한 인사이트 제공까지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국내 금융회사들과 역량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혜원 수석연구원은 "고객들의 당면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제휴와 협업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출시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준 기자 pkjhn@sorbiz.co.kr